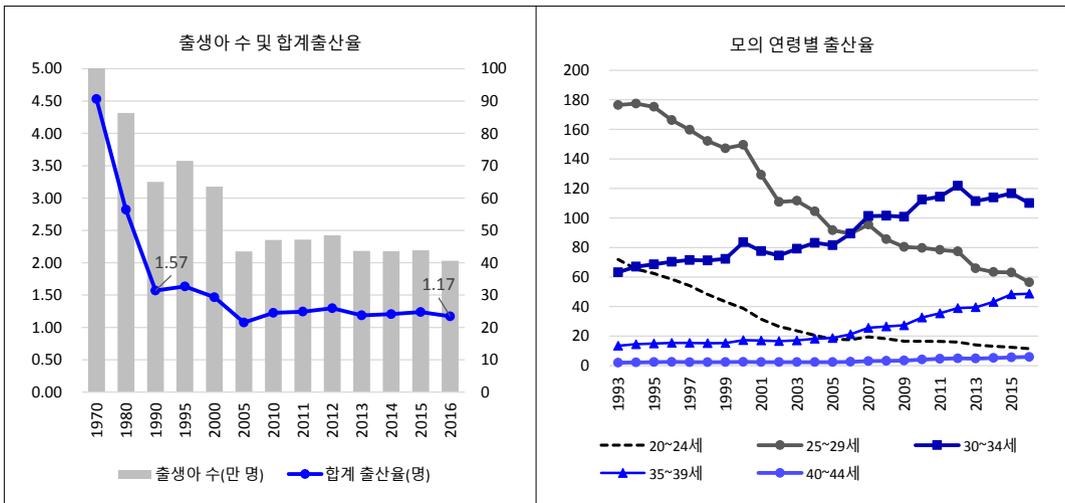


출산율과 기혼여성의 자녀수 변화

- 우리나라 2016년 합계출산율은 1.17명으로 200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출생아 수는 소폭 하락흐름을 이어가며 2016년 약 4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(그림 1 왼쪽).
- 한편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를 보면, 결혼시기의 변화 영향으로 20대 출산율은 1993년 이후 가파른 속도로 하락하는 반면, 30대 출산율은 증가 추세를 보임(그림 1 오른쪽).
- 20~24세 출산율은 2005년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이후 최근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고, 25~29세의 출산율은 1993년 이후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지속해 2016년 56.4명을 기록함.

[그림 1] 합계출산율 및 모(母)의 연령별 출산율 추이

(단위 : %, 명)



주 : 1) 합계 출산율은 가임여성(15~49세)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냄.
 2) 모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 연령 여성인구 1천 명당 명임.
 자료 : 통계청 KOSIS, 「인구동향조사」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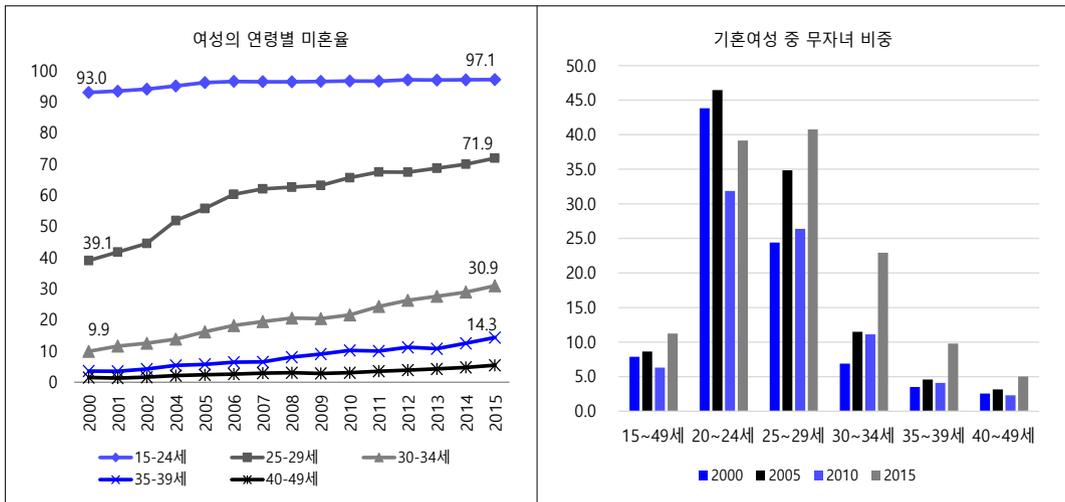
- 30~34세 출산율은 19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다 2012년 121.9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둔화하여 최근까지 110명을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.
- 반면 35~39세 출산율은 2005년까지 큰 변화 없이 약 15명 수준을 유지하다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2016년 여성인구 천 명당 48.7명까지 증가

○ 출산율 하락에는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주되게 작용하는데 미혼율의 증가와 무자녀 가구의 증가임.

-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을 보면, 25~29세 미혼율은 2000년 39.1%에서 2015년 71.9%로 급증했고, 30~34세는 9.9%→30.9%, 35~39세는 3.6%→14.3%, 40~49세는 1.5%→5.4%로 증가함(그림 2 왼쪽).
- 한편 기혼여성 15~49세 중 무자녀 비중은 2000년 7.9%→2015년 11.2%로 증가함(그림 2 오른쪽).
- 연령별로 보면, 25~29세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 증가폭이 가장 커 2000년 24.4%→2015년 40.8%로 증가했고, 30~34세는 2000년 6.9%→2015년 22.9%, 35~39세는 2000년 3.5%→2015년 9.8%로 증가함.

[그림 2] 여성의 미혼율(왼쪽) 및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(오른쪽) 연령별 추이

(단위 : %)



주 : 미혼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원자료를 활용했고, 무자녀 비중 자료는 인구총조사를 활용함.
 자료 : 통계청 KOSIS.

○ 연령별 기혼여성 중 자녀가 있는 경우로만 한정해 자녀 수 비중을 보면, 새로운 특징이 관찰됨.

- 모든 연령대에서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던 다자녀(2명 이상) 가구 비중이 2010년 →2015년 20대에서는 증가하였고, 30대에서는 가파른 감소 추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해 기혼여성이 크게 줄어든 20대에서 2015년 자녀 2명 비중과 3명 이상 비중 모두 증가했고 자녀 1명 비중은 줄어듦.
- 결혼연령이 늦어져 첫 출산이 늦어지는 영향이 반영된 30대는 자녀 1명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지만, 빠르게 줄던 자녀 2명 비중과 3명 이상 비중이 2010→2015년 감소폭이 크게 둔화됨.
- 정리하면, 과거에는 결혼 후 자녀 1명 혹은 그 이상을 낳았다면 최근에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예 낳지 않는 대신 유자녀 가구에서 둘 이상 낳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임.



〈표 1〉 유자녀 기혼여성 자녀수 비중

(단위 : %)

| | | 15~49세 | | | | | |
|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
| | | 20~24세 | 25~29세 | 30~34세 | 35~39세 | 40~49세 | |
| 2000 | 1명 | 22.7 | 76.5 | 56.1 | 26.0 | 16.1 | 13.3 |
| | 2명 | 61.1 | 21.3 | 40.3 | 65.1 | 70.4 | 60.9 |
| | 3명 이상 | 16.2 | 1.6 | 3.4 | 8.9 | 13.4 | 25.7 |
| 2005 | 1명 | 23.8 | 78.1 | 62.1 | 35.2 | 18.1 | 16.1 |
| | 2명 | 63.3 | 20.2 | 34.4 | 57.3 | 68.7 | 67.5 |
| | 3명 이상 | 12.9 | 1.2 | 3.1 | 7.3 | 13.1 | 16.4 |
| 2010 | 1명 | 27.9 | 78.1 | 69.2 | 47.4 | 26.9 | 17.3 |
| | 2명 | 59.8 | 20.3 | 27.3 | 46.0 | 61.7 | 67.2 |
| | 3명 이상 | 12.2 | 1.6 | 3.5 | 6.7 | 11.3 | 15.5 |
| 2015 | 1명 | 29.6 | 76.1 | 65.6 | 50.3 | 31.6 | 21.3 |
| | 2명 | 58.4 | 22.0 | 30.5 | 42.6 | 56.5 | 64.9 |
| | 3명 이상 | 12.0 | 2.0 | 3.9 | 7.1 | 11.9 | 13.8 |

자료 : 통계청 KOSIS, 「인구총조사」.

(정성미, 동향분석실 전문위원)